

# 싱가포르에 대규모 불교 랜드마크 세워져

### 2017년 불교사회 BW 사원 증·개축 공사... 2017년 완공

2017년 싱가포르에 불교 랜드마크가 세워진다. <Straits Times> 지는 “싱가포르 불교사회 BW 사원이 2년간의 증·개축 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 싱가포르 랜드마크로 우뚝 설 전망”이라며 “증·개축 이후 사원은 4층 불교박물관으로 탈바꿈되며, 예불·법회공간은 물론 도서관·병원·기숙사·레스토랑 등의 부속시설도 갖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 불교사회 BW 사원이 2년간의 증·개축 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 싱가포르 랜드마크로 우뚝 설 전망이다.

**증·개축에 2천만 달러 소요 전망**  
**도서관·병원·기숙사 등 부속시설 “재가불자 수행·신행 요람 될 것”**

불교사회 BW 사원 증·개축에는 총 2천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2017년 축구장 규모의 3만 4천 평방미터의 규모로 싱가포르 북쪽 우드가(Wood Avenue)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불교사회 BW 사원에 2천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에 마련하고 1,500여 명이 동시에 예불을 올릴 수 있는 공간 역시 마련된다.

림 티옹 분(Lim Tiong Boon) 사무국장은 “최근 도시 재개발 기관으로부터 증·개축에 필요한 토지를 구매했다”며 “이로

할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땅이 부족한 나라”라고 전제된 <Straits Times> 지는 “현재 130여 개의 사원과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 사원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라며 불교사회 BW 사원이 2013년 토지를 구입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불교사회 BW 사원의 공청회 외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 사원 및 단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전했다.

“대중법회나 불교축제 때마다 공간이 부족해, 정부와 개인에게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데만 매년 5만달러를 추가 지불해야만 했다”고 전한 림 티옹 분 사무국장은 “이번 증·개축이 끝나면 그런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오로지 부처님 일에만 모든 정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raits Times> 지에 따르면, 불교사회 BW 사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인 씨티라야(Citiraya)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100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변 건물을 임대해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씨티라야 센터 교육생의 기대감도 크다”고 말한 림 티옹 분 사무국장은 “2017년부터 이들의 수업은 물론 불교학계의 세미나, 포럼 등도 새롭게 단장한 불교사회 BW 사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육 과정을 좀 더 전문화해 재가불자를 위한 ‘학위 과정(diploma program)’도 신설할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불교학 관련 학사·석사 과정이 개설된 곳은 싱가포르대학이 유일하다. 따라서 불교사회 BW 사원의 ‘학위 과정’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싱가포르대학을 뛰어넘는 두 번째 교육 기관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현재 1천만달러의 증·개축 기금이 조정됐다”고 전한 <Straits Times> 지는 불교사회 BW 사원의 정 유안(Jing Yuan) 스님의 말을 인용, “싱가포르는 국민의 절반이 불교를 믿고 있지만, 그들의 심신을 다질 교육 기관이 부족하다”며 “불교사회 BW 사원은 그들의 마음공부에 반석이 될 서원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청소년 바른 가치관, 불교 윤리서 찾자”

### 달라이 라마 21일印 툼쿠르대 국제회의에서 강조

“윤리 교육에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21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에 있는 툼쿠르(Tumkur)대학에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Tibet Post> 지가 보도했다.



인도 카르나타카 툼쿠르(Tumkur)대학과 세라 제이(Sera Jey) 사원이 공동 주최한 21일 개최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의 전경.

이번 국제회의는 툼쿠르(Tumkur) 대학과 빌라쿠피(Bylakuppe)의 세라 제이(Sera Jey) 사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불교 윤리의 가치를 재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의의 기초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종교적 정치적 ‘폭력’에 물살을 잃고 있다”고 전제된 달라이 라마는 “폭력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에게 연민과 자비라는 불교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불교적 윤리를 강조한 교육은 동시대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폭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작은 세계’ 그 자체”라는 데 주목한 <The Times of India>지는 “이번 국제

회의는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의를 얻는 자리였다”며 “이는 인도 교육계가 달라이 라마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도 카르나타카 툼쿠르대학에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처음 열린 국제회의에는 자야찬드라(T.B.Jayachandra) 법무장관, 안자네야(H.Anjaneya) 사회복지장관 등 정·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2012년 툼쿠르 대학에서 요가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서 인간성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교수’에 임명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 중국 하이난서 방생활동 상업주의에 빠져

### 물고기 떼죽음 당해...물고기 구입에 천만원 넘게 사용

방생을 하려는 불자들에게 공양물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중국 하이난에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방생이라는 종교행위가 상업주의로 빠져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상해 인터넷 신문인 상하이스트닷컴(shanghaiist.com)은 “하이난에서는 불법적인 동물사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곳은 방생도 불자들의 호주머니 속 동전까지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의 비뚤어진 벤처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교를 주제로 한 난산 문화관광지구에서 이뤄지는 방생에서 물고기나 거북이는 한화 6800원에서부터 35만원까지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가장 비싼 것은 바다거북이로 거의 900만원까지 값이 올라간다. 더 나아가 물고기 구입에 천만원 넘게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상하이스트닷컴은 “방생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허가받은 양식장에서 거북이를 구입하고 방생 후 다시 잡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의 어부들은 방생된 바다 거북이들을 다시 잡아 팔아 돈을 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생은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문제를 사고 있다. 지난 해 송



거북이 방생을 하고 있는 중국 불자들.

지방 지역 인공호수인 시징호에 수많은 물고기가 죽은 채 떠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해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의 물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훗날 이 재난이 방생으로 인한 물고기들의 떼죽음이었음이 밝혀졌다.

무분별한 방생에 대해 상하이스트닷컴은 “2013년 12월에는 사람들이 800마리의 잉어를 풀어주었는데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다시 모두 어획되는 일이 일어나 방생이라는 종교적 행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나라 기자

# 클라우드 펀딩, 티베트·히말라야 불교연구

### 영 울프슨대학 10월 6일부터...현재 5만파운드 조성



영국 대학에서 티베트와 히말라야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은 티베트 라사.

영국의 대학에서 티베트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Oxford Student>지는 “영국의 울프슨(Wolfson) 대학이 지난 10월 6일부터 ‘티베트·히말라야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사 과정 이수자’의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 현재 5만파운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펀딩 기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드물다. 더욱이 학계에서는 더욱 생소할 따름이다.

“울프슨 대학 내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처음 도입할 당시 우려가 앞섰다”고 전한 울리크 로즈렐(Ulrike Roeser) 교수는 “지난 12주 동안 손톱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티베트·히말라야 연구’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프슨대학의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옥스포드대학의 참여도 뒤따라,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 옥스포드 대학은 티베트·히말라야 연구 분야에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영국의 유일한 대학이다.

한편 부탄의 불교지도자 갈왕 드룩파(Gyalwang Drukpa) 스님은 1,000파운드 이상을 약정한 펀딩 참여자에게 부탄의 불교유적 순례길을 함께 걷자는 내용을 담은 초대장을 보냈다. 갈왕 드룩파 스님은 울프슨대학의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1,000파운드를 기부했다.

울리크 로즈렐(Ulrike Roeser) 교수는 “히말라야 인접국은 모두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국의 색깔을 입고 있다”며 “따라서 티베트불교의 원형을 보존하고, 히말라야 인접국에서의 변화를 짚어내는 연구가 절실하다”며 “이는 티베트·히말라야 연구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해운정사 금모선원

주 지 지 성  
 신도 회장 박대성  
 사부대중 일동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화 :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 www.seon.or.kr

www.worldsangha.org

##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라

싯달타 태자가 부처되신 수행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세계승가회 회원이 되십시오.

세계승가회는 “출생을 묻지 말고 다만 그 행을 물어라”라는 평등무차 가르침에 따라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붓다수행법 공개특강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장소 : 견불선원(분당선 태평역 2번출구에서 750m 직진. 070-7717-2276)

마하 상가라자 : 뽀나싼도  
 회 장 : 수완나(光越禪師)  
 의전국장 : 설원  
 인권국장 : 태연

승왕비서실장 : 싯달라  
 한국대표단장 : 수밋다  
 복지국장 : 능화  
 국제국장 : 의연

세 계 승 가 회